

PET병 재질개선 세미나 12월14일 개최

<재활용이 용이한 PET병 재질·구조 개선> 세미나가 개최된다.

한국PET병자원순환협회(회장 이재혁)는 재활용이 용이한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병 재질·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.

세미나는 12월1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리며 환경부가 후원한다.

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수열 팀장이 <재활용이 어려운 PET병 재질·구조 사례>에 대해, 한국포장기술사회의 김기태 회장이 <재활용이 용이한 PET병 재질·구조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>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
이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이정미 사무관이 <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>에 대해 발표한 후 패널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1/12/01>